제 2 차 한중지사성장회의 제 1 의제에서의 발언

(2018 년 11 월 27 일)

탕이쥔

존경하는 리쇼린 회장님,

존경하는 박원순 회장님,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숙녀, 신사, 친구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제 2 차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랴오닝성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한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이번 회의를 위해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신 베이징시 정부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다같이 독특한 문명을 가진 나라이며,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연적으로 친근하고, 문화적으로 연분이 상통합니다. 2014 년 7 월 4 일에 한국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시진핑주석님 께서는 **“중한 양국은**

이웃하여 살고 있는데,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고 하였는바, 좋은 이웃은 금과도 바꾸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중지사성장회의의 발족은 천시를 만나고 지리를 가지고 인화를 순응하는 것이며, 양국민의 상호 존경과 신뢰,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원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며, 중한 양국에서 개방과 융합을 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는 것이며, 양국 지방자치체들 사이에서 승승장구로 공생공조를 하는 공동의 수요에 맞는 것이며, 중한 양국이 협력하여 이득을 공유를 하는데 있어서 친선의 교량, 교류의 교량, 협력의 교량을 가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한지자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새 시대에로 들어서자” 를 주제로 하고 쌍방간의 공동 관심사를 존중하며 중한 교류 협력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민간에게로 연계시키고, 경제 무역 분야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에게로 확장시키게 된 것이기에 우리는 손을 잡고 나아가면 공감되는 바가 더 많아 질것이고, 뒷심이 보다 더 강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사, 숙녀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저의 랴오닝성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은 중국의 황해와 발해를 끼고 있는바, 육지면적은 14.8 만 평방킬로미터이고, 해안선 길이는 1900 킬로미터가 되고, 상주 인구수는 4300 여 만명이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토대가 든든하며, 대자연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지방으로, 자연 자원이 풍부하고,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토지가 비옥한 고장입니다.

우리 성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널리 알려진 문명의 지역입니다. 랴오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8 만년 전에 금우산인이 이 땅에 발자취을 남겼으며, 8000 년전의 사해 유적은 “중화제일마을”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조양의 홍산문화를 대표로 한 요하 유역은 황하 및 장강 유역과 함께 찬란한 중화문명을 개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매력을 독차지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랴오닝은 산천이 웅장하고 경치가 수려하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넓은 하늘 아래 안정된 대지가 있습니다. 성내에는 국가급 명승지가 9 군데 있고,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이 14 군데가 있으며, 국가지질공원은 6 군데

있고, 국가삼림공원은 30 군데나 있어, 전지역적으로 관광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로서는 우세가 독특한 개방의 문호인 것입니다.랴오닝은 대동북이라는 배후기지가 있으며 화해와 발해와 인접하고 동북아시아를 지향하고 있으며 "랴오닝-만저우리-유럽, 랴오닝-몽고-유럽"과 "랴오닝-해양-유럽"이라는 3 개 국제 운송 대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전체적으로 6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고, 물동량은 11 억 톤이 넘었으며, 콘테이너의 처리량은 2000 만 표준 박스가 됩니다. 랴오닝은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금년도 지난 9 개월동안 양측의 교역 총액은 466 억인민폐에 달했으며, 하나은행이나 CJ 그룹을 비롯하여 우리 성에서 회사 운영이 매우 양호한 한국 투자 업체는 1000 개나 달하고, 총 투자액은 1000 억인민폐가 넘었습니다. 랴오닝과 한국 경기도는 재매결연 성도이고, 오늘 오전에 우리 성과 충청남도 사이에 중국대외우호협회에서 조인식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제창의 연대성을 가속화 한다면, 우리들 사이의 협력발전 공간은 더 광활해 질것이라 전망 됩니다.

네째로서는 공업 분야에서 튼튼한 실력을 가진 강대한 성입니다. 랴오닝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인 공업 기지로서, 오래전부터 "공화국의 장자"과 "동방의 루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온갖 공업 부문들이 다 있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실체 경제가 발달하고, 제조업에서 선진화된 성이며, 장비제작, 원유화학공업, 전자정보, 철강, 자동차, 농산품의 가공을 비롯한 모든 산업들은 상당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정보통신, 자동차 제작, 조선, 화학공업 등 산업 분야들에서의 종합적 우세를 발휘하여 랴오닝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고 랴오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랴오닝의 전면적인 진흥과 전방위적 진흥의 상업 기회를 공유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올해 9 월에 시진핑총서기께서 랴오닝을 시찰하시여 선양에서 동북진흥을 가일층 추진하는 좌담회를 주최하시면서, 랴오닝에서 신기상, 신담당, 신성과로 전면적인 진흥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희망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각계 친구들과 함께 현재를 놓치지 않고 내일을 지향하면서 랴오닝 신시대 진흥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공유할 것을 기대합니다.

신사, 숙녀여러분,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

시진핑 주석께서는 “관광은 문명 전파, 문화교류, 우의증진의 중요한 교량” 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랴오닝은 문화적인 성이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성으로서, 문화관광업을 기간산업으로, 국민혜택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우리가 성내 전체적인 관광 대회를 열어 성내의 실정에 입각하고 특색을 살리면서 문화관광의 심도 융합을 기본적인 경로로 하여, 문화관광의 개방과 협력을 실속있게 추진하는 것을 근본적 추동력으로 하여, 문화 관광업의 조약식 발전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생태, 휴양 관광 목적지로 전력으로 건설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랴오닝과 한국은 바다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잇닿아 있어 문화 관광과 교류가 매우 빈번합니다. 2017 년에 우리 성내의 여행사들이 한국으로 보낸 관광객은 연 17.5 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랴오닝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13.6 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랴오닝가무단, 발레단 등 문화 팀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공연도 하고 학술교류도 하였으며, 문화관광 기구들과 업체들 사이의 상호 방문을 자주 진행하고 있어 성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우리는 계속으로 경외로 나가는 동시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기도 하고 문화관광 협력을 심화시켜

이득공유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색있는 노선을 건설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각자의 우세한 것을 토대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정하고, 기반시설의 연결과 연통, 관광 시장의 호혜와 이익 공유 등을 통해 각 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풍부한 문화적 잠재력과 큰 시장성을 가진 특색 있는 문화관광 노선을 더 많이 조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변휴양관광, 빙설스포츠관광, 황실문화관광, 유물유적관광 등을 통해 대자연의 풍경을 마음껏 누리고, 그 문화의 매력도 전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전적인 명품을 제작하여 관광서비스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5 월에 중.한.일 3 개국 정상들이 발포한 공동선언에서 "동방유람"이라는 관광 테마 활동을 확정하고 2020 년까지 3 개국 간에 왕래하는 관광객 수는 3000 만명으로 실현할 목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협력을 지속으로 할 것이며 정상들 사이에 달성된 공동인식을 실시하며 규격화, 명품화의 서비스를

실행하여 최상의 봉사로 전 지역내의 관광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성은 해마다 “동북아시아국제관광문화주간”을 주최하고 있으며, 랴오닝의 풍부한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독특한 북국의 풍경을 체득하도록 한국 친구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관광지구를 건설하여 관광의 원천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대중 관광의 새 추세에 맞도록 랴오닝은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우수한 성으로 만들어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재와 지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지의 부속시설과 상업 종합체의 건설,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둘러싸고 우리 성에서 기획,투자를 하고 좋은 관광지와 프로젝트들을 건설하여 관광의 승급판을 조성할수 있도록 한국 업체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네째, 문화교류를 통하여 중한 우의의 새 장을 쓰는 것입니다.

중한 양 국민은 천연적인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며 랴오닝은 예로부터 중한 우호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무용도 능란하게 하며 손님 대접을 정열적으로 하는 조선족의 민풍은 랴오닝의

아름다운 풍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문화예술, 유물과 박물, 비물질 문화유산의 계승, 민간예술, 문화창작 산업을 비롯한 분야들의 쌍방향 교류, 캐리어 풍부화, 경로 확대, 심도 연신을 심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랴오닝성중한우호협회와 한국의 한중문화우호협회에서는 관련 기관 부서와 함께 <한중연사(랴오닝편)>을 편집, 출판하여 랴오닝과 한국과의 우호 교류 장면을 하나하나 재현하여 양 국민 간 친선 왕래의 화면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중한 우의의 새로운 장을 더 잘 써 나갈 것을 기합니다.

내빈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랴오닝에 찾아 오셔서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넓은 하늘 밑의 안정된 땅, 그리고 끝없는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십시요. 기개가 있고 호기스러운 랴오닝 국민들은 한국의 친구들을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환영 할 것 입니다.

랴오닝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